

2023. 1. 20.(금) 석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. 1. 20.(금)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역사편찬원

역사편찬원장	이상배	413-9558
--------	-----	----------

시사편찬과장	박명호	413-9539
--------	-----	----------

담 당 자	김근영	413-9655
-------	-----	----------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3쪽

누 리 집 (홈페이지)

http://history.seoul.go.kr

서울역사편찬원 유튜브로 듣는 책 “쉽게 듣는 서울사” 배포

- 《쉽게 읽는 서울사》 및 《시민을 위한 서울 2,000년》 총 9권 제작
- 책 속에서 다룬 고대~현대까지 서울 역사에 관한 소주제별로 녹음하여 구성
- 누구든 쉽게 서울역사편찬원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 있으며, 일주일 3회씩 순차적으로 오디오북 배포 예정

바쁘다! 바빠 현대사회!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, 궁금했던 서울 역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? 책을 봐야 하는 수고로움도 필요 없다. 산책을 하면서, 출근을 하면서,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잠깐 시간만 내면 서울 역사를 알 수 있다. 서울역사편찬원에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울 역사를 접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유튜브 채널에 오디오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.

서울역사편찬원(원장 이상배)은 이번 달부터 기관 유튜브 채널에 듣는 책, 오디오북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. 배포 대상은 《쉽게 읽는

서울사》와 《시민을 위한 서울 2,000년》 등 기관의 대표적인 대중서이다. 두 시리즈물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2,000년 서울 역사를 권마다 10~20개 주제별로 다룬 책이다. 서울 시민들이 궁금할만한 역사·생활·문화 부분의 여러 주제가 《쉽게 듣는 서울사》와 《시민을 위한 서울 2,000년》이라는 듣는 책으로 재탄생하여 공개된다.

□ 오디오북은 《쉽게 듣는 서울사》 고대편부터 배포를 시작하여, 178개 클립이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. 책과 동일하게 20개 주제별로 녹음되었다. 편안한 배경음악과 성우의 낭독으로 만든 오디오북은 각 클립 1개당 20~30분 길이이다. 일주일 3번, 하루 30분씩만 투자하면, 서울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이다.

- 첫 번째 편은 “서울에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을까?”(저자: 이형원, 한신대학교 박물관)로 백제가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기 이전,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서울의 유적과 고고학적인 배경을 설명한 내용이다. 이어 “한강이 서울의 고대 역사를 만들었다”, “백제의 시조는 누구일까?” 등이 차례로 업로드될 예정이다.

□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이번 오디오북 배포에 앞서 “시민들이 더 쉽게 서울 역사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 고민이 많았다. 오디오북을 통해 다양한 장소에서 서울역사편찬원의 발간 도서를 알게 되면 좋겠다”며 “연구기관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만큼, 올해도 《서울 문화마당》 등 다양한 도서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할 예정이다”고 밝혔다.

□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시의 역사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기관이다. 기관 설립 이래 서울 역사와 관련한 새로운 사료 발굴, 강좌·답사 등 시민교육프로그램 진행, 등재학술지(한국연구재단 인증) 보유 등 조사·연

구기관으로서 여러 사업을 모색하여, 전국 시사편찬 기관의 선도적인 사례로 거듭나고 있다.

- 이번에 배포를 시작하는 오디오북 자체 제작 역시 새로운 시도이다. 오디오북은 몇 년 전부터 출판시장의 블루오션이다. 글을 읽기 어려운 사람도 듣기만 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매체이기 때문이다. 역사 관련 도서는 전문 정보의 영역에 있어 친숙하기 어렵다는 오해도 있었다. 하지만 오디오북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발간 도서의 정보를 제공한다면, 많은 시민들이 서울 역사를 더 쉽게 향유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.
- 서울역사편찬원의 오디오북 배포는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측면도 있다. 제작한 “듣는 책”은 향후 도서관, 복지관 등 오디오북 수요가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. 이번 배포는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프로그램과 발을 맞추어가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- 오디오북은 오늘 19일부터 일주일 3번(화·목·토)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, 기관 유튜브 “서울역사편찬원” 채널을 통해 먼저 공개 예정이다. 또한 향후 2월말부터는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 (history.seoul.go.kr) 및 팟캐스트(팟빵) 등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.

붙임: 오디오북 제공 화면



그림1. 유튜브에서 제공 예정인 오디오북 쉽게 듣는 서울사, 썸네일